

녹야원에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

4월4일 인도 현지서...해충 스님 원력 결실

부처님께서 최초로 법을 설했던 초전법륜지에 한국어 초전법륜비(初傳法輪碑)가 제막됐다. 이로써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로 시작되는 우리말 초전법륜비를 통해 2550년 전 최초로 이곳에서 설법을 하셨던 부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가슴에 आरो세길 수 있게 됐다.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을 가능하게 한 중심에는 해충 스님(부산 김소사 주지)이 있다. 스님은 2004년 한-인수교 30주년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녹야원 최초의 한국 불상 봉안법회에서 법주를 전해 듣고 이곳에 한국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워 2년여 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곳에는 영국, 미얀마, 태국, 일본, 스리랑카 등의 불교국가에서 각국의 언어로 새긴 초전법륜비가 세워져 있었지만 한국어로 된 비(碑)는 없었던 것이 안타까

웠기 때문이다.

4월 4일 인도 녹야원 대각회 야외에서 제막식을 가진 한국어 초전법륜비는 한국 불자 300여 명의 보시 공덕으로 현지에서 제작됐다.

가로 2m, 세로 1.5m 크기 대리석으로 조성된 한국어 초전법륜비에는 '최초의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큰 제목 밑에 <초전법륜경(初傳法輪經)>에서 발췌한 부처님의 최초 법문을 새겨 넣었다.

바라나시 근교 이찌빠파나 녹야원에서 아야교교인 등 5명의 비구를 제도하기 위해 설했던, 출가자가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과 그것을 떠난 중도, 팔정도의 가르침과 사성제에 대한 법문 내용을 담았다. 또한 초전법륜비 하단에는 세계 평화, 국운융창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한국불자들의 발원문도 함께 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장관과 티베트불교 대학 부학장, 현지의 학생들, 한국에서 참여한 신도 등 1천여 명이 운집했다.

의식은 스리랑카식과 한국식이 함께 진행됐다.

수메다 스님은 "많은 한국불자들이 찾



부산 김소사 주지 해충 스님이 4월4일 인도 바라나시 녹야원에서 열린 초전법륜비 제막식에서 인도·스리랑카 스님들과 한국에서 온 불자들이 함께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강종권 교수

현지 행사에 동참한 강종권 동아대 교수는 "너무나 많은 현지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초전법륜비 제막에 관심을 보이며 마음을 모아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의식이 끝난 후 수메다 스님은 해충 스님과 함께 참석한 28명의 한국 불자들을 위한 특별 다과회를 베풀며 한국어 초전법륜비 제막을 축하했다.

수메다 스님은 "많은 한국불자들이 찾

는 이곳에 한국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초전법륜비가 세워진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기뻐했다.

해충 스님은 "초전법륜비 제막으로 이곳을 찾는 모든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소중하게 받들고 부처님 오신 뜻과 전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인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불교에서 미래찾는 중국정부

중국에 전제된 이래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불교는 중국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불교가 없었다면, 방대한 스케일과 깊이를 함께 간직해온 중국의 문화·미술·음악·철학 등 모든 문화가 성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서기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서고 이후 이른바 '개혁 개방 정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불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로 '인민을 억압하는 권력이며 아편'으로 대접을 받고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터넷 현대불교 <붓다뉴스> 4월 12일자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불교포럼'을 제안하여, 세계 30여 나라에서 오는 불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제 1차 대회를 저저양(浙江)성 항저우(杭州)와 저우산(舟山)에서 개최하고 있다.

인문의 시각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의도와 목적, 그리고 비판에 치중하는 서구의 시각은 별개로 하고, 우리는 '중국 정부가 왜 이 시점에서 불교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가, 아니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영자지인 '차이나 데일리(China Daily)' 2006년 4월 11일자에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공헌하는 불교'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요지는 "중국의 주류 종교인 불교가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 특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종교사무국 예사오원(葉小文) 국장은 "화합과 평화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간직하고 있

빈부격차·지역간 갈등·환경오염 고통 속 조화로운 사회 건설 위한 불가피한 선택

'세계의 화합은 마음으로 시작하자'를 주제로 내건 이번 포럼의 주최 측에서는 "세계 각국의 불자들을 위해 높은 수준의 강연을 제공하고 중국 불자들이 세계의 불자들이 대화·교환·협력의 통해 지혜를 나누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가 중국 불교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포럼' 준비위원으로 참여하는 중국 종교성 소속의 한 스님이 "이번 포럼을 통해 중국 정부가 종교에 대한 정책을 좀더 관용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이번 '포럼'의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新華)통신'에서 "중국에서 세계적인 불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1949년 공산당 집권 이후 최초의 행사"라고 보도하는 것만 보아도, 이번 '포럼'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그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서구

는 종교인 불교가 인민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따라서 사회적 조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배교품의 해결이 과제였던 중국이 이제는 빈부 격차와 지역간 갈등, 산업화에 따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고, 당연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그 '답'을 찾아 탐색하여 '그 해결책을 불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 그 결과가 '다양한 불교 정책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사오원 국장의 말과 같이, 화합·평화와 자비라고 하는 불교적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중국 내부의 화합과 세계의 평화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음은 확실하다.

중국 정부의 불교 정책 변화는, '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불교가 필수가 된 현실 상황'에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다.

■ 자유기고가

“차(茶)로 한국불교 알려요”

뉴질랜드 남국정사, 다도회 구성 한국문화 소개



뉴질랜드 남국정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다도회를 열고 있다.

뉴질랜드의 한국 교민은 1993년 초 약 2천명에서 현재 3만 여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늘어났다. 이곳의 초기 한국 이민자는 다른 나라와는 조금 다르다.

다양한 계층이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일반적인 유형이 아닌, 특정 분야를 전공(공대한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착한 것이다.

불교는 언제나 그렇듯이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흡인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대다수 교민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200여 곳(한인교회)으로 늘

어간 반면 불교시설은 3곳에 불과하다.

처음 만나면 묻는 말이 누구나 "어느 교회 나가세요?"였고, "절에 다니다"고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아니, 뉴질랜드에도 절이 있습니까?"였다.

그런 가운데 1994년 5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기념해 일부 교민 불자들이 모여 남국정사가 창립됐다. 처음엔 21명으로 시작한 작은 모임이었지만 그 해 말에는 270여명으로 늘어났고, 장소도 초대 회장의 집에서 가정법회로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의 작은 강당을 빌려 쓸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드디어 뉴질랜드 남부 오클랜드 쿠메우(Kumeu)의 현 장소로 이전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매년 부처님 오신날에 이곳 현지인 국회의원이자 지방의회 위원장들을 초대해 우리의 전통문화와 한국불교를 소개한다.

특히 남국정사주지 동진선 차 문화를 통해 한국불교와 문화를 알리는데 주

력하고 있다. 차 문화는 서양인들에게는 낯설지만 그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훌륭한 불교문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한국의 차 전문가를 초빙해 강좌를 열었고, 8월에는 오클랜드 남쪽에 위치한 '해밀턴 박물관'에서 주최한 '한국 전통차 전시회' 행사에 전조 출연해 한국다도를 알리는 '선 차시연'도 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많은 현지인들은 높은 호응과 함께 우리 차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런 반응에 용기를 얻은 남국정사는 현지인들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다도회를 구성했고, 올해 1월 17일에는 '제 1차 다도 기초반수료식'을 가졌다.

물론 뉴질랜드에 차 문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차에 매력을 느끼는 현지인들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곳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뉴질랜드에서 한국불교, 그리고 우리의 전통문화가 이곳 현지인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키자는 각오가 대단하다.

글·사진/뉴질랜드=보리안(본지 통신원)

불기 2550년 부처님오신날

나라번영 민족화합 세계평화 불교중흥기원

제 11회 불교문화대제전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불기 255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 자비행영이 함께 하심을 기원드립니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형스님이 20여년간 김산도를 연구하고 정진 하여 1996년 새봄에 봉행한 제1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月下 大菩薩에서 전히 임석 증명법어를 전하시고, 당시 대몽령 축전으로 축하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총무원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와 사부대중 1만여명이 동원한 가운데 원만히 성취 되었습니다. 이후 끊임없는 연마를 계속하여 금년 제11회 대길상도전을 거행합니다. 김산은 불교의 범구비유경 제4권에 상세히 실려져 있습니다. 대제전 작품은 대길상도와 함께 왕희지체 서법, 漢代의 예서체, 漢代의 동서예체, 齊白石 필법 등 法書 작품을 연가하여 도와 예술의 심오한 경지를 성취하여온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의 力作들로 무한한 감동을 체험할 것입니다. 대제전은 그동안 불교계 대표적 문화제전의 한 효시로 뿌리내려 불교발전과 밝은사회 구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격려와 축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 봉행되었던 제10회 제전은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 영축통림 풍도사주지 원문스님, 일련우리당 문화상 의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롯데그룹 신조호 회장 등 각계인사 다수가 법문 축사와 축하의 뜻으로 동참하였습니다.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 선필 대길상도는 세계적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대길상도는 각급기관 美화대사관등 국내외 여러 인연처와 각급단체 언론사등에 작품이 전시되어 소중하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石山 玉龍子 석지형 스님 대길상도는 세계적 특허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특허청 (UNITED STATES OF AMERICA PATENT AND TRADEMARK OFFICE)과 日本정부 특허청의 의장특허를 획득한 독창성과 예술성 높은 품격 국제적보편성을 인정받은 세계적 작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11회 제전을 통해 고강한 필력의 다양한 김산도와 무리 10여m에 이르는 天馬圖, 추사체, 문수동자도, 낙산대불도 등 정성다하여 밤새워 조성한 작품들을 모아 장엄하고 환희충만한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념대법회 : 2006년 4월 20일(목) 오전 11시

☎ 작품전 : 2006년 4월 20일~4월 23일(4일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불교전문문화행사

☎ 기념불교문화대제전 : 작품전 기간 중 매일 오전 11시 ~ 오후 1시까지 불교계 권위의 큰스님과 법사님의 특별대강좌 마련

☎ 장소 : 잠실 롯데호텔 3층 특설대법회장, 전시관

☎ 지방순회작품전 : 2006년 4월 24일(월)~5월 12일(금)

玉龍子 大吉祥圖 作品展

서울 소림정사 불교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32

TEL: 3446-2158, 2185, 3443-9871 ~ 7, 511-6210 ~ 5